

主體思想과 맑스레닌주의와의 關係

— 統治理念으로서의 位相을 中心으로 —

교양과 최용섭
전임강사

I. 序 論

1. 研究目的

主體思想과 맑스레닌주의가 북한의 공식적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중심과제이다. “外生的 共產主義 國家”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북한 공산체제하에서 初期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가 주체사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체사상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는 어떤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근래에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급격한 변화의 渦中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그 대부분이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국가들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북한 공산체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조한 주체사상을 모토로 하여 더욱 공고한 통제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여기에서 두가지 문제의식이 파생된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적합한 순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인 것인가? 아니면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이 자신의 집권을 장기화시키기 위해 맑스레닌주의를 變造해 놓은 變形理論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認識이다.

북한은 다른 외생적 공산국가라 할 수 있는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채택 유지해 온 대표적 국가이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보다 월등히 김일성 개인에의 권력집중과 전체주의적 동원 체제를 철저히 유지, 강화시켜온 측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발견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었던 냉전체제는 이제 붕괴되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를 야기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냉전체제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요인이 급격히 붕괴된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냉전체제는 동일한 외부적 환경하에서 체제존립을 꾸려왔던 북한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외부적 환경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체제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노선이 중국식으로 사회주의체제의 骨幹을 유지해 가면서 점진적이고 체제방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점진적이고 체제방어적인 입장이 주체사상의

특질에서 파생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조한 사례는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변혁의 와중에 처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권력의 세습적인 이양 등 맑스레닌주의에서 일탈한 유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기존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은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과정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 맑스레닌주의가 채택되는 과정과 주체사상으로의 전환과정 그리고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轉化되어가는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과 그 본질을 파악코자 한다.

2. 研究方法

사회주의체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소개되고 사용되는 접근방법으로는 歷史文化論的 接近法, 全體主義的 接近法, 近代化내지 發展論的 接近法, 複合組織 接近法, 集團葛藤 接近法, 엘리트 접근법, 自由化 接近法 그리고 體系論的 接近法과 機能分析 등이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 수용과정과 주체사상 등장과정 및 공고화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서 歷史的 接近法(historical approach)을 채택하기로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은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통치이데올로기로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그리고 김일성주의가 그 相位를 달리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分析記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構造機能的 分析方法을 채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文獻分析法을 통하여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여기에서 주로 이용한 문헌은 이分野를 다룬 國內文獻과 필자가 접할 수 있는 북한문헌을 참고하였다. 주 내용은 북한 연구소의 北韓總覽을 母體로 하여 時期를 劃定하였고 內容分析은 주체사상에 관한 북한문헌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였다.

II. 社會主義體制와 이데올로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맑스레닌주의라는 唯一的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되고 작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접근방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

¹⁾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 歷史的 狀況, 이데올로기, 한길사, 1983, pp. 349 ~ 379.

되어져 왔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데올로기를 “思想의 論理學(the logic of an idea)”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 아렌트의 이데올로기 정의가 이데올로기의 일원적인 속성과 일관성 등을 너무 강조한 면이 있지만 그의 정의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갖고 있는 중심사상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아렌트의 이데올로기적 정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다양한 정치적 含意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一元的으로 파악하기에는 難點이 있으나 그 자체가 지향하는 바는 일원적인 목표에 한정된다는 것은 과언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神의 敎理”로서 수용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는 그 어느 이데올로기 보다 찬란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식으로 변조한 주체사상이 그 위상을 대체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위상과 본질을 살펴보고 차후 전개되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1.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이데올로기 役割

이데올로기란 既存 혹은 展望되는 정치사회적 여건에 대해 갖고 있는 행동지향적이고 어느 정도 일관성있는 信念體系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의식과 의미있는 작용을 연결시켜 주는 媒介體로서 認識의 思考 또는 說明의 思考가 아니라 행동의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³⁾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이데올로기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맑스의 이른바 下部構造에 대한 上部構造의 全體를 가리킨다. 즉, 狹義的으로 보면 政治, 法律, 宗教, 哲學, 藝術 등의 精神的 文化的 諸觀念形態를 가리킨다. 그중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그 擁護 支持하는 가치와 미래사회에서의 유토피아를 제시함으로써 지지집단 내부의 連帶感을 강화하고 성원들에게 使命感과 행동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특정한 이데올로기는 특정 정치체제의 유지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권 국가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체제유지기능 면에 있어서 그 어느 이데올로기 보다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外樣이라 할 수 있는 全體主體 政治體制는 사회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체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념체계 즉, 單一의 公式的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黨과 國家가 채택한 單一의 이데올로기를 전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실천을 요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行動主體를 표방하는 이데올로기 지배체제로서 규정되고 있다.⁴⁾ 여기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완전히 일치되고, 국가와 사회

²⁾ Hannah Arendt,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6, p. 469.

³⁾ 鄭賢壽, 北韓 社會主義 體制變化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pp.16 ~ 17. 參照

⁴⁾ 上揭論文, p.26.

의 基本法인 憲法은 黨만이 해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⁵⁾ 그리고 개인은 국가와 사회에 완전히 종속됨으로써만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위와같이 자유의 개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독특한 이데올로기로부터 緣由한다.

그레거 (James Gregor)에 의하면 전체주의 체제는 사회와 개인간에 밀접한 有機的 관계가 있으며, 사회는 개인들에게 봉사하고 복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國家權力에 대한 集團主義的 擁護論을 스스로 正當化시킨다고 보고 있다.⁶⁾ 따라서 전체주의 체제의 지배자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전국민을 再社會化시켜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動員體制를 構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體制變化와 이데올로기

일반적으로 체제변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는 先과 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체제가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대체적으로 특정한 정치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성립을 기반으로 해서 출현한다. 그러나 체제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체제유지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사회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쇠퇴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相位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체제변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보다 理論的 次元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영향력과 고도로 집권화된 제도적 구조를 통해 작용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데올로기적으로 의식화된 활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中央集權的 엘리트 조직체인 공산당 위계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상사회를 창조한다는 명분을 지닌 정치지도자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를 정치제도 내지 정치지도층의 지도능력과 환경적 영향력간의 교호작용으로 파악한다면,⁷⁾ 일정한 정치체제의 변화는 양자간의 교호작용 과정에서 孕胎되는 긴장 때문에 발생한다. 정치체제도 인간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형성해 왔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정치체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환경변화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변화의 가능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⁵⁾ 사회주의권 국가의 헌법상의 기본권에는 권리의 行使와 임무의 履行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권리의 행사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合致되어야 한다는 권리의 一般的 社會制約性 基本權規程에 그 實質的 保障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民主主義 國家와의 差別性이 存在한다. 張明奉, 共產黨憲法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5. p.271.

⁶⁾ A. James Gregor, Contemporary Radical Ideologies, New York : Random House., 1968, p.8.

⁷⁾ Richard Cornell,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0, p.3.

비록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여러가지 면에서 異質的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⁹⁾ 고르바초프는 소련 사회의 비능률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과감한 정책변화와 체제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변화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는 레닌주의에서 찾았다. 중국의 鄧小平은 집권이후 사회주의의 건설을 理念關係 보다는 생산력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의 일정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려는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종래의 모택동주의로부터 離脫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여 실천 이데올로기를 이끌어 내고 있고 또한 실천 이데올로기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재수정하여 現實的 接合性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통칭되는 환경적 변화가 정치체제를 보다 다원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독점적인 이데올로기의 역할에도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독점적인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변화 유인 이외에도 권력 엘리트의 정치성향과 리더쉽같은 정치요인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변화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데올로기가 현실속에 하나의 상부구조이자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변화되는 패턴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⁹⁾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 위상변화도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될 수 있다.

Ⅲ. 時期別로 본 主體思想과 맑스레닌主義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에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질적인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종전후 세계에는 도처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중국에서와 같이 자생적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된 예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점령지역에서 점령군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타율적으로 공산정권이 들어선 예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自主的 共產主義 정권이라기 보다는 外生的 共產主義 정권의 유형을 강하게 표출하며 출범하였다.¹⁰⁾ 정권수립과정에서 김일성을 주축으로 하는 甲山派가 소련의 지원을 얻은 관계로 공산화를 구축해 나간 초기단계에서는 소련의 이념과 제도를 모방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대체적으로 북한 노동당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1945.10.13)으로 출발하여 북조선노동당(1946.8.29), 남북노동당연합중앙위원회(1948.2)를 거쳐 조선노동당(1949.6)으로 창당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의 이념이 대체로 4

⁹⁾ 鄭賢壽, 前揭論文, p.41.

⁹⁾ 上揭論文, pp.46 ~ 47.

¹⁰⁾ 북한 정권수립과정에 대해서는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I,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3, pp.57 ~ 109 ; 김창순, “朝鮮勞動黨의 派爭”, 梁好民 外, 北韓共產化 過程 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pp.217 ~ 238;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오일, 1989 參照.

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¹¹⁾

第 1 期：共產主義 理念定着期 (1945.8 ~ 1948.3)

第 2 期：革命傳統確立期 (1948.4 ~ 1961.9)

第 3 期：主體思想構築期 (1961.10 ~ 1970.11)

第 4 期：主體思想確立期 (1970.12 ~ 1980.10)

위와같은 시기별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은 형성 되었는데 맑스레닌주의의 북한에서의 수용은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자.

1. 共產主義 理念 定着期

해방후 소련점령군하의 북한에는 당시 박헌영 중심의 國內派, 김두봉 중심의 延安派,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蘇聯派,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甲山派 등 4개의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있었다.¹²⁾ 정치적, 이념적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가 소련 점령군의 후원과 지도하에서 공산화를 구축해 나간 초기단계에서는 소련의 정치제도와 이념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제 3 차회의에서 당책임비서로 선출되었고 1946년 9월 9일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방된 조선의 사회발전 단계를 사회주의 단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단계라고 규정짓고 그 이념은 소련화된 맑스레닌주의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³⁾

오늘 조선의 민주주의의 계단은 결코 맑스 레닌주의를 떠나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맑스-레닌주의적 사회발전의 법칙의 궤도 위에서 그 깃발 밑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 맑스 레닌주의는 사회발전의 매단계, 혁명발전의 매단계에 있어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이론이며 따라서 그것은 오늘 조선에서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행하는 데서도 유일의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은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총화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맑스레닌주의는 사회발전의 매단계에서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이론이며 따라서 그것은 조선에서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행하는 데서도 유일의 지침으로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북조선 노동당 최초의 당규약이나 1948년 9월 9일 북조선노동당 주도하에 건립된 조선민주공화국의 건국헌법에는 맑스레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맑스레닌주의가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된 것은 1956년 4월 23일 시작된 조선노동당 제 3 차 전당대회에 이르러서이다. 개정된 당규약의 제 1 장 당 부문에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 학설

¹¹⁾ 金昌順, 北韓總覽, 北韓研究所, 1983, p.133.

¹²⁾ 金昌順, “朝鮮勞動黨의 派爭”, 양호민 외 前掲書, pp.217 ~ 238.

¹³⁾ 김일성 선집, 평양, 1954, pp.246 ~ 264.

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¹⁴⁾고 천명하였다. 또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노동당에서 우리의 先進黨들의 풍부한 혁명적 경험과 맑스레닌주의를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것을 조선의 정세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은 “당선전 사업과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사상적으로 결속시키는 가장 유력한 무기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2. 革命傳統確立期

제 2기라고 볼 수 있는 제 3, 4 차 당 대회에서는 당 總和期間으로 당의 이념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抗日革命傳統을 부각시킨 시기이다.¹⁵⁾ 이것은 김일성 일파의 정통성 위기로부터 오는 권위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다. 지나친 소련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자주성 결여와 스탈린 사망으로 인한 집단지도체제의 대두를 둘러싼 연안파와 국내파들의 도전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항일무장투쟁을 내세워 김일성 일파의 공산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권위를 정당화함으로써 김일성 1인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 하였다. 즉, 초기에는 古典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이념으로 하였으나 점차 당의 이념과 전통을 국내의 革命傳統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즉, 맑스레닌주의를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정치노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라는 연설에서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여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고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자와 용감히 싸운 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시기로 그들 체제의 정통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는 항일무장투쟁 기간동안 김일성의 연설내용을 모아 놓은 항일무장혁명운동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은 4 차 당대회에서 “지난 총결기간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전통 교양과 결부시켜 강력히 진행하였다”고 당의 혁명전통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은 반드시 혁명전통교양과 결부되어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명백히 인식시켜 투쟁정신 배양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보고를 종합해 문서화한 것이 조선노동당 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예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라고 당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전통을 당의 이념으로 삼아 왔다.

¹⁴⁾ 김준엽 (의) 편, 북한연구자료집 제 11 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pp.817 ~ 828.

¹⁵⁾ 金昌順, 前掲書, p.134.

3. 主體思想 構築期

제 3기는 5 차당 총결기간으로 주체사상을 크게 부각시킨 시기이며 김일성이 대내외로부터 가장 커다란 시련에 부딪친 때였다. 북한에서 주체의 확립문제를 당내에서 공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당사상사업에서의 주체를 주장한 연설에서 비롯된다.¹⁶⁾ 당시까지만해도 소련에 대하여 충성을 바쳤던 김일성이 당의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의 확립을 거론하게 된 것은 1953년 이후 전개된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권력과 정책로선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¹⁷⁾ 즉, 1953년의 스탈린 사망과 한국 휴전을 계기로 露呈된 연안파와 국내파, 소련과의 黨權鬭爭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옹호 강화하려는 전략상의 요청에 따라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투쟁에서 스스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의 확립을 절대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련 또는 중국을 믿고 자기의 독재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反黨宗派分子요, 이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소련 또는 중국의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主體도 창조성도 없는 분자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對內的 契機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거쳐 중·소분쟁과 공산권의 大分裂에 이르는 國際共產主義運動內的 狀況變化라는 對外的 契機와 不可分の 교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의 통치로선에 바탕이 되어온 스탈린주의는 1956년 2월 개최된 소련 공산당제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해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 스탈린격하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중·소간에 이데올로기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중소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해계모니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한 덩어리로 뭉쳤던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이 모스크바형지향, 북경형지향 또는 독자형지향의 당과 국가로 분열되어 갔다. 국제환경이 동서간의 평화공존과 그에 따른 국제긴장의 완화로 분위기가 변하게 되자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 내부와 미·소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영향이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현실적 요청에 副應하도록 김일성이 시도한 사상적 예방조치가 먼저 ‘당사상사업에 있어서의 주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며 이것이 후에 주체사상의 형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은 김일성 반대파에 의한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운동을 전개도록 하였다.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투쟁에서 스스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의 확립을 절대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 사상사업에서의 주체란 당내의 사상적 事大主義 분자를 계급투쟁을 통하여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政敵의 제거와 항일투쟁

¹⁶⁾ 金甲喆, 高性俊, 主體思想和 北韓의 社會主義, 문우사, 1988, pp.67 ~ 73.

¹⁷⁾ 金昌順, 前掲書, p.136.

¹⁸⁾ 金炳日, “北韓體制變化의 可能性”, 申正鉉 外, 1990년대 北韓體制的 變化樣相에 대한 分析和 評價,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91, p.29.

의 의의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으려 하는 의도가 복선에 깔려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을 주장하였다.¹⁹⁾

*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주체의 확립 문제

……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혁명적 진리, 맑스레닌적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진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련의 형식을 기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투쟁경험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련파의 과오지적

…… 소련을 향하여 배우는데 형식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우다지에서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달면 우리 노동신문도 우리조국의 하루라는 제목을 달니다. 그런 것까지 따를 필요가 어디 있는가?

*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일치

* 조국통일의 두가지 전도

* 혁명전통의 강조와 김일성 직계의 옹호 등이다.

4. 主體思想 確立期

제 4기는 6차 당대회 총결기간으로 기간중 제기된 가장 큰 위기는 김일성의 후계자 선택의 문제였다.²⁰⁾ 김일성은 소련, 중공 등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의 先例에 따라 사후 자신에 내려질 비판과 격하에 두려움을 느껴 이를 세습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구호아래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세습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권력세습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위기를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 4기는 맑스레닌주의는 언급함이 없이 오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내세움으로서 주체사상이 유일한 당의 이념임을 나타내고 있다.

김일성이 1971년 6월에 개최된 社勞靑 제 6차대회에서 처음 후계자문제를 거론한 이후 당에서의 김정일의 지위는 빠른 속도로 상향되기 시작했고 19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서열 제 4위로 부상되면서 후계자로 공식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는 카리스마도 혁명업적도 없는 해방후 세대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정통성의 결여문제를 안게 되었다.²¹⁾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에서 보다 더

¹⁹⁾ 김일성 선집 제 4권, 평양, 1960, pp.324 ~ 325.

²⁰⁾ 金昌順, 前掲書, p.137.

²¹⁾ 高性俊, 主體思想의 形成과 體系化, 統一研究論叢, 국토통일원, 1988, p.23.

공식적인 성향을 띠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정일에게 주체사상의 解釋權과 더불어 그 사업의 완결업무를 지워주는 것으로 주체사상의 계승, 발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1980년 10월 당 제 6 차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정통적 해석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2년 3월에는 주체사상을 체계적이고 이론적 사상의 틀로 제시하려는 뜻이 담긴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된다.²²⁾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이 논문이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叢書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 교과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불멸의 전투력 기치이다.²³⁾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후 김정일은 주체의 체계화를 위하여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E. 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10)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83.5) “주체사상교육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권력계승과정을 정당화시키는 명목하에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를 서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주의를 당규약이나 헌법에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명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체계화 내지는 이론화가 아직 미비한 데서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방이후 소련군정 하의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어떻게 수용되었고 통치이념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혁명적 전통이 加味된 상태에서 북한의 통치이념이 변모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또한 1950년 중반에 즈음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주체사상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정치에 있어서 自主, 경제에 있어서 自立, 국방에 있어서 自衛, 사상에 있어서 主體를 표방하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이념으로서 정권수립기의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으로서 명실공히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시기별로 북한의 통치이념이 변화된 것을 간략히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²⁴⁾

다음장에서는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와는 그 이론적 내용면에서 어떻게 相異한가에 관해서 알아보자.

²²⁾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김정일 명의의 논문단화, 1987, 參照.

²³⁾ 김창원,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 근로자, 1987.12, p.13.

²⁴⁾ 金昌順, 北韓總覽, 北韓研究所, 1983, p.138.

〈圖表 1〉 政治理念目標 및 實踐方案 變遷

구분 기별	정치이념	당면목표	실천목표
제 1 기 (1945. 8 ~ 1948. 3)	맑스레닌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 완전통일, 독립 국가 건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조직, 민주기지 강화
제 2 기 (1948. 4 ~ 1961. 9)	맑스레닌주의	사회주의건설 및 강화 反帝 反封建 민주주의 혁명	천리마운동
제 3 기 (1961.10 ~ 1970.11)	맑스레닌주의 主體思想	사회주의 강화발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자력갱생 : 경제건설 사상교양 : 혁명화 노동계급화 3대혁명역량 강화 및 4대군사노선
제 4 기 (1970.12 ~ 1980.10)	主體思想	사회주의 완전 승리	붉은기 쟁취운동 (3대혁명) 3대혁명역량 강화

IV. 內容으로 본 主體思想과 맑스레닌主義

북한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자국의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전체주의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이념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主體理念이다.’²⁵⁾ 여기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뜻은 기본적으로는 맑스레닌주의를 따르나 그 중 국제주의를 부분 수정하여 북한 중심의 것으로 바꾸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맑시즘의 전체주의 요소만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사상의 철학적 기초부터 구체적 행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새 사상체계의 정립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와의 비교는 그 獨創性과 普遍性등 하나의 이념이 지니고 있어야 할 조건을 먼저 다루어야 하겠으나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장에서는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의 내용상의 비교를 시도해 보자. 다음 도표는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의 내용을 비교적 간략히 논술해 놓은 것으로서 인식형성의 편의를 위해 넣어 보았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는 그 원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변형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일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그 해설서를 통하여 그 요점만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²⁵⁾ 1972.12.27에 改正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4 조.

〈圖表 2〉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比較

領 域	김 일 성 주 의	맑스레닌주의
社會的 目 標	人間의 自主性이 最高로 實現되는 社會	私有財産이 撤廢되고 人間の 自己 疎外가 극복된 無階級社會
世界觀 人間觀	人間 中心의 世界觀 인간은 최고로 발전된 物質的 存在	唯物論的 世界觀 感覺的 存在
歷史觀	역사의 주체: 人民大衆 역사의 추진력: 人民大衆의 自主的 推進力	역사의 주체: 프롤레타리아 역사의 추진력: 生産力의 發展 프롤레타리아의 階級意識
革命과 建設論	指導原則: 自主性, 創造性, 思想性 革命觀: 自主性을 위한 투쟁, 人間의 意識的 鬭爭 革命的 原動力: 人民大衆의 革命意志, 首領의 指導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 階級鬭爭과 社會主義 建設 並行 · 長期에 걸친 獨裁	지도원리: 階級鬭爭, 主意意識 革命觀: 既存權力的 打倒와 낡은 生産關係의 解體 革命的 原動力: 生産力(맑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만 適用
민족觀	民族的 自主性 強調	民族 보다 階級을 強調

* 高性俊, “主體思想의 形成과 體系化”, pp.50 ~ 53을 土臺로 作成.

같다.²⁶⁾

- *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人間中心의 主體哲學의 原理
 - * 人類의 歷史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지향한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역사의 주체는 바로 인민대중이라는 主體史觀的 社會歷史理論.
 - * 혁명과 건설의 원칙으로서 자주성, 창조성과 더불어 특히 目的意識性을 강조하는 主體的 指導原則
 - * 黨理論에 있어서 黨의 役割보다도 首領의 役割을 강조하는 점.
 - *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論에서 過渡期가 끝난 다음에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임무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 * ‘萬國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라는 口號로 대표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民族主義論의 전개.
 - * 사회주의 建設論에 있어서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繼續 革命論의 전개.
 - * 所謂 革命的 群衆路線으로 표현되는 主體의 領導方法 등이다.
- 위에서 살펴본 비교를 보다 심층적으로 전개시켜 辨證法的 唯物論과 主體思想間의 관계와

²⁶⁾ 金甲喆, 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共產主義, 문우사, 1988, pp.190 ~ 202 參照.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공산주의와의 관계, 혁명관에 있어서의 相異를 알아보기로 하자.

1. 辨證法的 唯物論과 主體思想

맑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고 설명하였다. 그는 경제체계의 변화가 상부구조를 변화시킨다는 經濟決定論의 立場을 취했으며 역사를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唯物史觀을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유물사관 이론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도출된 법칙에 근거하는 것이지 추상론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필요성은 사회구조의 다른 부분들이 존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모든 上部構造는 당시의 생산수단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맑스의 유물사관에 대해서 북한학자들도 수용하는 태세를 취하기는 하지만 맑스가 그의 이론을 사회변화과정을 지배하는 과학적인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맑스 당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실례로 김정일의 論文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는 이와같은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맑스주의 철학이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인 운동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면 …… 주체사상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법칙이 해명된 조건하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였다.’²⁷⁾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맑스류의 철학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정도의 사상으로 파악하는 인상을 던져준다.

맑스주의는 物質과 意識의 先次的 關係를 규명하는데 그들의 힘을 경주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할 수 있는 실천에 관한 철학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응당한 힘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대의 문제들이 주체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맑스류의 유물사관을 그 전제에 두고 물질세계의 最高 產物의 하나인 사람에 의한 세계지배와 그 改造發展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定式化했다는 것이다. 이는 맑스류의 경제결정론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맑스레닌주의는 역사의 발전에서 인간의 역할이 限定的임을 밝혔는데 반하여 주체사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자연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김일성이 주장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논리를 이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²⁸⁾

2. 民族共產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맑스는 人類史를 계급투쟁사로 이해하고 있으며 계급간의 이해관계는 민족단위 국가의 국

²⁷⁾ 태백편집부(편), 북한의 사상: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태백, 1988, p.468.

²⁸⁾ 철학강좌(김일성방송대학강의록), 평양, 1974, p.37. 김갑철, 前揭書, pp.114 ~ 115에서 再引用

경을 초월해서 성립한다고 믿었다.²⁹⁾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를 초월하여 노동자 계급의 연대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비해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써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적 긍지를 지니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국방에서의 自衛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民族主義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국제적인 노동자 계급의 連帶性에 의한 目的 達成 보다는 일면 민족감정에 지배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북한 지도층 역시 민족감정에 예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 3세계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은 과거 식민지 모국에 대한 적대감에 기원을 두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범주에서는 예외가 아니며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민족주의는 抗日武裝鬪爭 정신에 입각한 反日思想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⁰⁾ 그러나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민족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완전히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강조하면서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³¹⁾

현시대의 조류는 국제주의 보다는 민족 중심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련의 경우와 동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은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림길에서 국제공산주의 本流를 지키고자 하는 김일성이 민족공산주의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주체사상하에서의 그들의 인식은 1980년 10월의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중린이 연설한 내용을 살펴 보면 어느 정도 명확해지리라 본다. 그는 동연설에서 “민족문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민족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이나 사상이념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²⁾ 이 내용을 보아서도 주체사상이 국제주의의 명목을 내걸고 있음에도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민족공산주의의 범주를 초월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革命觀에서의 相異

주체사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혁명관은 생산양식의 교체를 중심으로 했던 마르크스 혁명이론과는 상당부분 대조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당이론가인 황장엽은

²⁹⁾ 태백편집부(편), 前掲書, p.470.

³⁰⁾ 박한식,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양성철, 박한식(공편), 북한기행문, 한울, 1986, p.124.

³¹⁾ 김일성주석담화집의 내용, 김갑철, 북한정치 Ideology 분석: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서향각, 1977, p.61에서 再引用.

³²⁾ 노동신문, 1980.10.14. 전인영, “북한의 주체사상”, 이흥구(편), 마르크시즘 100년: 사상과 흐름, 문학과 지성사, 1984, p.61에서 再引用.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난 시기 생산양식을 중심에 놓은 혁명이론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찾았다. 경제생활이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인만큼 생산 방식의 변화발전이 사회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생산력은 본질상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력이며 생산관계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 관계의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방식은 그 어떤 초인간적인 직관적 존재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창조하는 것도 사람이며 변화 발전시키는 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고찰해 볼 때에만 생산방식 자체의 본질과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똑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주체사상에 있어서 혁명논리는 개인→집단→인민대중→ 또는 근로대중으로 규정되는 집단주의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자주와 창조를 추구하는 본질에서 이를 제약하는 사회체제를 파괴하고 새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개혁의지가 인민대중이라는 집단의 의지로 발현하는 것이 곧 혁명의지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주체사상에서는 맑스적인 혁명 자연 발생說은 부정되고 레닌주의적인 의식적 투쟁설이 채택되고 있다.³⁴⁾

주체사상에 의하면 이전의 생산양식을 중심에 두고 전개한 혁명이론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잘못이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의지 및 혁명역량이 그 원인이 된다.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에서는 혁명의 본질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자연적인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혁명으로 보는 이전의 혁명이론 관점을 거부했다. 즉, 주체사상에서는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상, 기술, 문화를 선진적인 사상과 기술, 문화로 개조하는 것도 혁명으로 보며 따라서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한 후에도 이 세 영역에서의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모택동의 不斷革命論과 그 내용적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주체사상의 계속혁명 논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주체의 혁명이론은 주체사상의 이른바 인간중심론을 정치경제학의 제법주들에 도입하여 정치경제학의 여러 개념들을 변형시킨 것³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V. 主體思想과 맑스레닌主義와의 位相關係

本章은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와의 통치이념 측면에서의 위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는 주체사상이 과연 맑스레닌주의와의

³³⁾ 황장엽,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1979. 4. p.22.

³⁴⁾ 이상우, “정치이념 : 사회변화와 대남정책”, 김준엽. 스칼라피노(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1985, p.300.

³⁵⁾ 梁好民 外, 북한사회의 재인식 1. 한울, 1987, pp.70 ~ 71.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주체사상의 獨創性 내지 繼承性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본장의 범주도 이러한 한계를 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 2장에서 다루었듯이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가 轉置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은 김일성이 50여년전인 1920년대에 이미 주체사상을 창안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독창성의 주장은 주체사상의 창조적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창조적 입장이라 함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북한의 현실에 맞도록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아울러 인민대중이 그들의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혁명정신을 최대한으로 發揚함으로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높이는 태도를 말한다. 창조적 입장은 창조적 적용과 적극적 혁명정신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³⁶⁾

북한의 社會科學院에서 펴낸 政治用語辭典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은 전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여 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에 일관하고 있는 근본사상은 주체사상이다.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현 시기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근본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해명을 주고 있는 지도사상이다.”³⁷⁾ 이 설명에 의하면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김일성은 日本 毎日新聞과 月刊紙 世界와의 회견에서 “원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한다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이를 강조했을 따름입니다”³⁸⁾ 라고 말한 바 있다.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에서 계승성과 독창성을 파악하는데 김정일의 입장은 독창성의 우선적 강조이다. 김정일은 그의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원칙을 다 계승하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풍부화시키고 있다”³⁹⁾ 고 주장하여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를 정확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계승성을 무시하고 독창성만을 강조해서는 안되고 반대로 독창성을 무시

³⁶⁾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적 적용이란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일반원리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창조적 적용의 구성요소는 적극적 혁명정신이라는 것이다. 즉,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여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다른 나라 경험의 비판적 적용 못지 않게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혁명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혁명정신이란 인민의 자발적 참여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대중의 참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태백편집부(편), 前掲書, p.472.

³⁷⁾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224.

³⁸⁾ 毎日新聞 1972. 9.19 고병철, “이태올로기와 북한의 외교정책”, 이흥구, 스칼라피노(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법문사, 1986, pp.24 ~ 25에서 再引用.

³⁹⁾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상우, 北韓共產主義의 本質과 問題點, 韓國의 安保環境, 제 2집,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p.8에서 再引用.

하고 계승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⁰⁾ 그는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를 계승은 하였으나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체사상의 독창성은 오히려 일본의 친북한단체인 조총련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⁴¹⁾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朝鮮新報에서는 김일성주의를 단순히 맑스레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 시대적 제약을 극복했던 현대의 맑스레닌주의가 아니고 맑스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적 입장과 방법론에 입각한 독자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사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에서는 김일성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있다.

“김일성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독자적인 이론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 보다도 이 탁월한 혁명사상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니고 인류사상 최초로 발견된 주체사상을 근본적인 토대로 하는 불멸의 사상이론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인 이론이 되는 것은 이 탁월한 혁명사상이 인간과 자국혁명을 중심에 두는 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지나간 과거의 노동자 계급의 지도사상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입장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술한 바와같이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맑스레닌주의의 繼承性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김일성 보다 주체사상의 獨創性을 강조하는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계승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인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 김남식이 지적하듯이 레닌주의와 맑스주의와의 관계가 계승성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독창성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는 독창성을 기본으로 하여 계승성은 다소 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지금까지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 내용적인 측면만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맑스레닌주의의 원리를 계승하면서 김일성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데올로기를 지배이데올로기화시키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필자는 前章에서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 더 나아가서는 김일성주의화로 이어지는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을 사회경제적 구조와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⁴⁰⁾ 노동신문, 1987. 4. 2 高性俊, 前掲論文 p.48에서 再引用.

⁴¹⁾ 井上同人, 現代朝鮮과 金正日 秘書, 雄山閣出版社, pp.160 ~ 170. 최완규, “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 염홍철(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29에서 再引用.

⁴²⁾ 河秀圖, 金日成思想 批判, 東京:三一書房, 1980, 최완규, 前掲論文 p.31에서 再引用.

⁴³⁾ 김남식, “주체사상의 이론구조와 그 비판연구방향”, 북한통치이데올로기 연구: 그 현황과 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331.

지배이데올로기로 확고히 공고화시키는 데에는 거의 30여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 기간 중에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重疊해서 일어났다. 중소분쟁이나 극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구조 변화, 그리고 남한 政局의 急變 등과 같은 환경적 여건이 발생했고 국내적인 수준에서는 세력갈등 속에서 김일성 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권력구조 계승의 차원에서 김일성주의는 더없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문화집단에서만 가능한 수 있는 것으로서, 주체사상 이외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상정되기 어려운 문화적 풍토가 역설적으로 주체사상을 培養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VI. 總 評

지금까지 해방이후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 유입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형성과 확립 그리고 김일성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시기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역할이 그 어느 체제 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은 그 나름대로 맑스레닌주의를 교묘하게 변화시키며 그 체제유지에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 속에서는 여러가지 개입변수가 있다.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스탈린 사망전까지는 스탈린의 총복으로 행세했던 김일성이 스탈린 死後 돌연히 主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점과 국내적으로는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전개되는 상황하에서 상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체사상이 등장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 원인으로서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문화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다. 가부장제적인 유교문화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관행에 익숙하여 자율적인 의사형성과 의견 표출의 경험이 없었던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의 형성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발전과 정치체제 변화간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 즉,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으로서 정치체제는 보다 多元化된다는 論理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여전히 견지하면서 아직 動員體制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兄弟國家들의 변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로서 경제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변화압력을 막아주는 것은 북한만의 독자적인 주체사상의 기능에서 緣由한다고 볼 수 있다.

政治, 經濟, 國防, 思想에 있어서 自主, 自立, 自衛, 主體를 표방했던 김일성 주체사상은 이제는 북한의 확고한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통치이념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傳統繼承을 외면하지는 않고 있으나 맑스레닌주의의 현실적 적용이라든가 그 행동지침의 具現 등을 통하여 그들의 주체사상이 보다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그들의 理論紙와 機關紙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추종기관인 조총련을 통해서도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도 이해되는 바 실로 크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종래의 경우와 같이 서만(Franz Schurman)이 모택동 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純粹이데올로기를 보완시켜 주는 實踐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방식⁴⁴⁾을 機械的으로 援用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純粹이데올로기로 그리고 김일성주의를 實踐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방법은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이 하나의 독립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主義로 보기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이 너무 혼합되어 있어서 그 타당성 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체사상은 통치이념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면을 볼 때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볼 수 있겠으나 그 이론상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고유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 변형이론임을 지적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 고성준: 주체사상의 형성과 체계화, 통일연구논총, 국토통일원, (1988)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오월, (1989)
 김갑철, 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의 사회주의, 문우사, (1988)
 김갑철: 북한정치 이데올로기 분석: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서향각, (1977)
 김남식: 주체사상의 이론구조와 그 비관방향 연구, 북한통치이데올로기 연구: 그 현황과 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김병일: 북한 체제변화의 가능성 전망, 신정현(외), 1990년대 북한체제의 변화양상에 관한 분석과 평가,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1)
 김일성선집, 평양, (1954)
 김준엽(외): 북한연구자료집 제 11 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김창순: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김창순: 조선노동당의 파쟁, 양호민 외, 북한공산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김창원: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 근로자, (1987.12)
 양성철(외): 북한기행문, 한울, (1986)
 양호민(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한울, (1987)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1,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염홍철(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이상우: 북한공산주의의 본질과 문제점, 한국의 안보환경 제 2 집,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이흥구(외): 마르크스시즘 100년: 사상과 흐름, 문학과 지성사, (1984)
 장명봉: 공산권헌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정현수: 북한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⁴⁴⁾ 서만은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체라고 보고 그 연결관계가 간접적일 때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로, 그리고 그 연결관계가 직접적일 때,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분류했다.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21 ~ 22.

-
- 태백편집부(편), 북한의 사상: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태백, (1988)
- 황장엽,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1979.4)
- Arendt Hannah, *Origins of Totalitarianism*,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6)
- Cornell Richar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0)
- Gregor A. J., *Contemporary Radical Ideologies*, N. Y.: Random House, (1968)
- Schurma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California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A Study of Chucheism and Marx-Leninism

— With focusing to the rule ideology —

Choi Yong Sup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 the Chucheism and Marx-Leninism as principal ideology in North Korea.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hucheism and Marx-Leninism in terms of period and context.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objectives, the thesis employs the historical approaches and structure-funtional approach.

This paper first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cheism and Marx-Leninis.

In this study the period was classified four stages and the context was analyzed in terms of dialectical materialism, national Communism and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 view of revolution.